

석유화학, ‘흐린 뒤 맑음’… 신사업 내세워 적자 메운다

화학제품 수요 위축·공급 과잉
에틸렌 스프레드 ‘만들수록 손해’

LG화학·한화솔루션 등 영업이익 ↓
2분기 성수기… 흑자 전환 기대

첨단소재·생명과학 등서 매출 ↑
변동성 큰 석화업황 영향 덜 받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내외적 영향으로 1분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회복될 줄 모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 상반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을 제외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은 거의 발표를 끝마쳤다. 올해 들어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영향을 기대하며 석유화학 업계의 실적 상승을 기대했지만, 1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진한 업황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이후 줄



LG화학 대산공장 전경.

/LG화학

어든 중국 내 수요 회복은 더딘 편이다. 유가가 올라 원유 기반의 나프타 가격도 높아져 화학제품 수요도 위축됐다. 여기에 석화업계의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가격) 가격 회복이 더더 영업이익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올해 1분기 내내 손익분기인 톤당 30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손익분기가 톤당 300달러 이하가 되면 ‘만들

수록 손해’라는 공식이 적용된다.

실제로 LG화학은 올해 1분기 석유화학 사업에서 50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낸 것이다. LG화학 측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가전과 건설 업황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요 제품 수요가 줄었고, 영업이익도 동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LG화학 콘퍼런스콜에서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소비 및 투자, 환율 등 불확실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힘난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2분기부터는 성수기 진입 및 점진적 수요 회복세로 석유화학 사업은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도 화학 시장 악화로 인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3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6.9%로 떨어졌다.

금호석유화학 1302억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수치다. 11일 실적 발표를 예고한 롯데케미칼도 올해 1분기 144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수요 부진에 공급 과잉까지 동시에 일어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석화 업계는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업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사업 매출 비중을 늘리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다. 신사업

을 내세운 한화솔루션과 LG화학은 석화업황에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G화학은 첨단소재, 생명과학에서도 영업이익을 올리고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8523억원 영업이익을 올리며 적자폭을 대폭 감소시켰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신사업으로 내세우며 1분기 반등의 주역이 됐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002억원, 영업이익 2714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8.9%, 영업이익은 85.1%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만 29.4% 증가한 133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호석유화학도 사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사업에선 타이어용 고품 합성고무와 라텍스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기초사업 부문에서는 합성수지 판매 범위 및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여기에 배터리 소재로 사용 가능한 탄소나노튜브(CNT)의 제품 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이노·SKIET, ‘탄소 포집 시장’ 개척 나서

가스 분리막社 ‘에어레인’에
자사 LiBS 제조 기술과 결합

습식·건식 한계 극복 대안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가스 분리막 전문업체 ‘에어레인’에 투자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용 분리막(LiBS) 분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의 핵심인 ‘포집’에 활용해 탄소감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에어레인은 가스 분리막 전문기업으로 분리막 생산과 이를 이용한 분리막 모듈·시스템 설계, 생산,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어레인은 국가지정 분리막 연구실에서 시작해 사업 초기 에어프로덕츠, 아사히글라스 엔지니어링, 미츠비시 가스화학과 같은 해외 선진사 OEM 제품 생산과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쌓아왔다. 현재는 소재 설



투자 계약 서명식 후 강동수 SK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부문장(왼쪽부터)과 하성용 에어레인 대표이사, 이병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 BM혁신실장이 각각 서명한 계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계부터 조달, 분리막·모듈 생산, 시스템 설계·제조·운영·관리 등 가스 분리막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상업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 포집 분야에서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고순도 청정수소 생산 시 필요한 이산화탄소 분리 시스템을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 발전소에 공급하는 사업 확장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LiBS 제조 기술을 에어레인의 가스 분리 기술과 결합해 분리막 포집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높은 효율성을 가진 신규 고성능 분리막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고, 에어레인이 현재 보유한 분리막 기술 고도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탄소 포집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분리막 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

을 모색한다.

분리막을 활용한 탄소 포집은 기존 습식, 건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보편화된 습식은 액상 흡수제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는 방법으로 규모를 키우 포집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부지 소요, 흡수제 재생에 많은 에너지 필요, 흡수제 분해 및 그에 따른 환경 유해 물질 발생 등이 걸림돌이다. 건식은 에너지 소모가 습식보다 적은 고체 흡착제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비용을 아끼고 설비 소형화가 가능하지만, 흡착제 마모와 뭉침 현상 탓에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막을 활용하여 포집하는 분리막 방식은, 막 이외에 화학 물질, 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 폐기물·폐수 발생이 없고, 분리막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작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어 설비, 배관 등이 복잡한 공장에 최적인 방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CCUS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탄소 포집 시장 규모도 성장이 기대된다. 탄소배출 자체를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고, 대기에 남아있는 기존 탄소 또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세계적인 CCUS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50년까지 관련 장비 시장 규모만 누적 45조엔, 연간 10조엔의 경제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 CCUS 업계에서는 이중 포집 분야에서만 60% 가량의 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부문장은 “에어레인과 협력으로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에서 반드시 필요한 CCUS 분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공동 투자한 분리막 포집 기술 뿐만 아니라, SK에너지의 활용 기술, SK에스온의 저장 기술 등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CCUS 분야 경쟁력을 적극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LG전자에 무선청소기 폐배터‘리턴’하세요”

제조사 관계없이 폐배터리 반납 후
새 배터리 구매 시 최대 2만원 할인

LG전자가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로 다시 깨끗한 배터리를 만들며 지속 가능한 사회에 힘을 보탠다.

LG전자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배터리 리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가 직접 자원 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 배터리를 구입할 시 할인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LG전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조사와 관계없이 사용했던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를 반납받는다. 반납후 새 배터리를 구매하면 2만원을 할인해준다. 폐가전 수거함에 폐배터리를 반납하면 홈페이지에서 1만1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LG전자는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배터리 1개에서 니켈(31.91g), 코발트(4.21g), 리튬(6.06g), 망간(2.04g)의 희유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새로운 배터리 재료로 재활용하며 선순환을 실현할 예정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에도 폐배터리 수거캠페인을 통해 2개월간 12.5톤

을 수거한 바 있다. LG전자가 운영하는 칠서 리사이클링센터에 2021년 수거된 폐배터리가 약 8톤, 자원 순환에 크게 기여한 셈. 이를 통해 추출한 희유금속으로 A9S 배터리 2만2000개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의 리더로서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LG전자가 실천하고 있는 ESG 경영의 일환이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日 대표하는 ‘토요타 크라운’, 국내 상륙

크로스오버 모델 출시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무장하고 ‘기술의 토요타’를 증명하려는 모습이다.

토요타코리아는 다음달 5일 국내에 크라운을 공식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크라운은 토요타를 대표하는 모델이다. 1955년 처음 양산을 시작해 지금까지 플래그십으로 자리잡아 일본 럭셔리 세단을 대표해왔다. 일본에서 크라운이

라는 단어가 럭셔리를 대표하게 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크로스오버다. 2.5L 하이브리드(HEV)와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등 2개 형태로 들어온다. 해머헤드 디자인을 비롯한 크라운스러운 외관, ‘아일랜드 아키텍처’ 콘셉트로 직관적이고 편안하게 만든 실내 공간을 갖췄다.

/김재웅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